

우유, 유제품 소비촉진과 낙농자조금

1. 우유, 유제품 소비에 대한 인식의 정리

우유와 유제품의 소비상황과 장래 예측에 대한 관계자(낙농가, 유업계, 정책당국, 학자 등)들의 인식을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와 같이 흰 우유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소비촉진 홍보방향을 다양한 기능의 우유와 유제품들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우유시장도 글로벌화 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버터나 대중소비용 치즈 그리고 수급조절용 또는 수출용 분유류와 같이 장기저장성이 높은 유제품들은 이제 곧 실현될 FTA의 자유시장하에서 세계가 통합된 시장으로 거래될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 낙농산업과 우유, 유제품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오세아니아의 수출용 유제품들과 북미 그리고 동유럽의 잉여유제품들이 우리시장에 넘쳐흐를 것이다. 더 나아가서 만주지역의 흰 우유가 완제품으로 불과 반나절 만에 서울의 시장에 한국 유업체들이 생산한 같은 제품의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납품될 것이고 한편으로 일본의 북해도에서 생산된 흰 우유가 동해항으로 청정고급우유라는 선전과 함께 수입될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영호남지역에서 생산된 원유 또는 완제품의 흰 우유가 일본의 남부지역(시코구, 규슈 등)으로 수출될 가능성도 매우 긍정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낙농은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



회장 이만재
동물자원과학회 낙농연구회

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문제의 대책에 대한 인식을 일치하지 않으면 우유, 유제품에 대한 소비촉진과 자조금에 대한 대책수립의 의미가 없게 된다. 근본적으로 그러한 세계시장상황에서 한국의 낙농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과 소비촉진에 대한 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이며 그 기본적 방안은 수입우유와 유제품과의 품질의 차별화이다.

그리고 낙농가들의 단결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낙농이 우선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2. 세계낙농에서의 한국낙농의 우선과제

①젓소사육환경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 소비자들 특히 어린이들이 볼 때 깨끗하고 친밀감이 드는 아름다운 목장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수입우유에 대응하여 국내의 목장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현장을 보여 줌으로서 소비자들의 우리 우유에 대한 애착을 가지도록 한다.

②BST, 항생제 등의 사용을 엄격히 금하고 철저히 유기농적인 사육을 통하여 목장 HACCP을 실천한다. 청정하고 자연 그대로의 우유라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준다. 그래서 수입우유보다 우리 우유가 더 안전하고 위생적이라는 소비자인식을 하루 빨리 정립해야 한다.

③셀레늄, CLA, 락토페린 등과 같이 우유의 특성으로 발현되는 기능성원유의 생산개발에 투자한

다. 우유의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채워 줌으로서 우유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부각시킨다.

④젓소의 검정사업, 수정란 생산, 배아증식, 복제 등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낙농자원개발에 적극 투자한다. 우리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낙농자원 사업을 개발한다. 이 부분에서 이미 서울우유와 공동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황우석 박사와 같은 최고의 홍보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⑤모든 한국의 낙농가들은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통합하는 운동을 실행하여야 한다. 일부 대형 낙농가들의 개별적인 영업체와의 거래는 아직까지는 부분적으로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거래교섭의 약자로 이용당하고 영업체의 수입유제품에 밀려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직불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이를 위한 초기수년간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무이자 장기/20년이상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 때 단일조합으로 통일하는 방법은 개별가입과 단체가입의 두 가지 방법으로 통합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단체가입은 지역 낙농조합이 의무적으로 단일 낙농조합에 가입하여 가공사업, 금융사업, 지도사업, 집유사업 등을 공동으로 집행함으로써 위에 열거한 한국낙농의 우선과제들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낙농가들의 과감한 결단과 일사불란한 행동실천이 요구된다. 특히 조합장, 임원 등에 연연한다면 우리 낙농은 영원히 발전할 수 없다고 확신하며, 모두가 진정한 낙농인으로서 정치적인 사욕을 버리고 우리 낙농을 위하여 결사할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때 낙농진흥회는 자연히 소멸 될 것이다.

낙농업을 앞으로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낙농인들은 이상의 실천과제에 대하여 우선 동의할

필요가 있다. 이 시간의 주제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위의 실천과제에 모든 낙농가들이 참여하고 하나의 힘을 발휘 할 때만이 가능할 것이며 현재의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나 도움만 바라다면 우리 낙농은 머지않은 장래에 쇠퇴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우유소비 촉진과 확대를 위한 몇 가지 방안

①학교우유급식의 확대

중고등학교까지 의무급식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초등학교 교사와 영양사들에 대한 우유전문지식을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우유의 중요성과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확실한 우유지식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유지식 교육용 전문교재 제작하여 전국 모든 학교의 교사와 영양사들 그리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배포하여 우유의 진귀한 가치를 알려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 방식을 벌크냉장 공급방식으로 전환하여 우유 디스펜스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사들이 언제든지 마음껏 우유를 마시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약 300톤/일의 원유가 더 소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에 따른 유제품개발

우유의 특성을 부각하는 건강기능우유를 개발하고 홍보해야 한다. 예를들어 저탄수화물/저유당 우유, 당뇨환자용우유, 비만인용우유, 노약자용 면역강화 초유우유, 락토페린/멜라토닌 우유, 셀레늄우유 등등 건강기능 특화한 우유의 대 중국 수출, 노년층이 증가하므로 노인전용우유 개발 홍보, 식사대용 우유의 개발/호상발효유와 곡류, 견과류, 치즈, 베이킹가루, 야채 등과 혼합한 간편 영양식 등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여 더욱 더 많은 제품을 개발할 경우 약 200~400톤/일의 원유가 더 소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대북 어린이 우유지원

북한 인민학교 어린이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